

# 수능 절대평가 백지화...수시·정시 유지

## 2022 대입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

학생부·수능전형 적정비율  
수시 최저학력 기준 활용 등 공론화  
교육부, 과목 개편·EBS 연계율 결정  
학종 공정성 제고 조치 권고

2022학년도(현 중3) 입시에서 기존에 논의됐던 수시·정시모집 통합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논란이 됐던 학생부·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의 적정 비율 등은 시민들이 공의를 거쳐 결정하게 됐으나, 핵심 현안인 수능 과목구조 개편, 수능-EBS 연계율 등은 교육부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 쟁점을 담은 이송안을 넘기며 ▲학종전형-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3가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입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이 가운데 선발 방법인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型的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수년간 각계 의견이 대립해 온 사안을 시민 400명으로 구성할 '시민참여단'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계속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수능 최저기준은 학생부전형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대학이 학생부전형 비율을 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포함했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최저기준은 중간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왔다.

특위는 지난해 수능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방법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다만 1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은 '상대평가 유지'로 한정했다.

교육부가 이송안에 담았던 '수능 원점수제'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극복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확정” 김진경 대입제도개선특별위원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지난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하기 어려워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다.

또,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의 보완책으로 거론된 원점수 제한적 제공(수능 100% 전형) 역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의문이라며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 점수 경쟁 유발 및 선택과목간 유·불리 문제도 이런 판단에 작용했다.

한편 특위는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정했던 수·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길 권고하기로 했다. 모집 시기를 통합하면 수능과 학생부 등 전형 요소를 복잡하게 조합해 활용하는 전형이 생겨 대입전형 단순화라는 정책 기조를 거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특위는 학종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능 과목구조 개편, 수능-EBS 연계율 등 그 밖의 사항은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하되, 학종전형 자기소개서 폐지와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포함 여부는 국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김진경 대입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중요 기준으로 적용했다”며 “특히 국민 관심과 전형 비중이 높은 사항은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보수 논객’ 지만원 잇단 피소

### 김사복씨 유족...“아버지 폄훼 더는 못참아”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김사복씨의 유족이 5·18 민주화운동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고 주장해온 지만원(76)씨를 검찰에 고소한다. 지만원씨로부터 북한 특수군인으로 지목당한 5·18 참가자 지용(76)씨도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다.

지난 31일 5·18기념문화센터에 따르면 김사복씨의 아들 김승필(59)씨와 지용씨가 내달 4일 광주지방법검찰청에 지만원씨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지만원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수(북한 특수군인)들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대가로 북한에서 요직을 차지했

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5·18 기록사진에 등장하는 지용씨를 ‘제73 광수’로 지목했다. 지용씨는 1980년 당시 시민군 일원으로 항쟁에 참여했고, 계엄군 헬기사격을 목격한 광주 서구 주민으로 알려졌다.

지만원씨는 5·18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힌츠페터의 광주행길을 도운 택시기사 김사복씨를 폄훼하는 글도 수차례 인터넷에 올렸다. 김승필씨와 지용씨는 검찰에 고소장을 낸 뒤 5·18단체와 함께 지만원씨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지용씨는 이날 자리에서 1980년 당시 촬영한 미공개 사진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임종석 靑 비서실장...“주사파 지칭, 이제 그만”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보수논객 지만원(76)씨가 피소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지만원(76)씨를 고소한 것이다.

지난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최근 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임 실장에게 ‘주사파’ 등의 표현을 쓴 근거와 이유를 조사했다.

지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했다. 검찰은 앞서 임 실장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고소 경위를 조사했다.

주사파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배후라는 옛 안기부 발표 등이 주장의 근거다. 임 실장은 1989년 제3기 전대협 의장을 지냈다. 후신적인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달리 전대협은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지씨는 피소에도 불구하고 임 실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임 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통해 저작권료 명목으로 20여 억원을 복수에 보냈다고 이날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장을 맡은 경문협은 남북간 지적재산권 교류사업을 하는 단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연합뉴스

## 광주 낮 최고 31도...오늘부터 여름더위

올해는 6월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지난 3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31도까지 오르는 등 나주 31도, 구례 31도, 담양 30도, 화순 30도 등 당분간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이 평년(낮 최고기온 24~28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있는 고기압 영향으로 당분간 비 소식 없이 30도 안팎의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3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기온과 비슷하지만 낮부터 기온이 올라 여수와 흑산도를 제외한 지역의 낮과 밤 기온차가 최소 10도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1일 광주·전남 미세먼지 예보를 ‘보통’ 단계로 전망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 대기정체로 인해 일부지역에서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제 63회 호남예술제

# 새싹그리기 축제

접수기간 | 2018. 6. 5(화) ~ 6. 8(금)

**개요**

- 대상 : 전국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결과발표 : 2018년 6월 21일(목)
-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없음

**참가**

- 참가비 : 7,000원 (20명 이상 단체할인 5,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4 SC제일은행빌딩 10층(우 61482)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사항은 일반적인 대화요강에 준함

문의 |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 오늘의 날씨

	<b>해돋이</b> 05:19	<b>달돋이</b> 21:53	
	<b>해질</b> 19:41	<b>달질</b> 07:20	

성큼 다가온 더위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광주	맑음	16/31	보성	맑음	14/28
목포	맑음	16/26	순천	맑음	16/30
여수	맑음	17/27	영광	맑음	14/28
나주	맑음	13/31	진도	맑음	15/26
완도	맑음	16/28	전주	맑음	15/30
구례	맑음	14/31	군산	맑음	15/27
강진	맑음	14/30	남원	맑음	14/30
해남	맑음	13/29	흑산도	맑음	16/23
장성	맑음	13/3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남부	먼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	남~남서	0.5
서부	먼바다(동)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먼바다(서)	북~북동	1.0~1.5	북~북동	1.0~1.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10	03:59
	21:02	15:47
여수	04:36	10:26
	16:22	23:02

◇ 주간 날씨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8(금)
18/31	19/31	17/30	18/27	18/28	18/28	18/29

◇ 생활지수

- 주의
- 매우높음
- 자외선
- 보통